

## 생활공간 속 보행안전 확보 위한 노력

대전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2021. 4. 15.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 4. 19.

제주도 교통정보센터  
2021. 5. 17.

### 대전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마련 및 시행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를 마련,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 필수 안전시설\*, 위치별 설치기준\*\*을 총 48개 점검 항목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각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주체에 해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건축계획 등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주택건설계획승인 신청 시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교통전문가에게 확인받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서울시가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구역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첫 대상지로는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4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6월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와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 제주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추진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의 효과가 확인되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보호구역을 벗어난 주 통학구간까지 노란색 노면표시로 지정하여 보·차도를 구분하고 시인성을 높이며 어린이들의 한쪽 보행을 유도한다.

도는 사업 추진 후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9년 18건 대비 약 39% 감소한 11건에 그쳤고, 특히 사업 완료 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그중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쳤다고 알렸다.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행 전후  
장전초등학교 통학로 모습

출처: 제주도. (2021).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탁월'. 5월 17일 보도자료.

- \*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안전보호구역 표지, 조명시설 등
- \*\* 진출입로, 교차로 등
- \*\*\*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계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